

과소화유형에 따른 농촌사회 정주수요 분석

이희찬·김현*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Determinants of Demand for Residential Settlement in Rural Society Based on Depopulation Classification

Lee, Hee-Chan · Kim, Hyun*

School of Hospitality & Tourism, Sejong University

*Korea Maritime Institute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demand for residential settlements in rural societies. A significant aspect of the demand analysis was to consider depopulation classifi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with a view to its role as an essential dividing factor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environments of the areas of concern. The data collection for analysis was divided according to types of depopulation into the three categories of less developed, stagnated, and developed areas. For the cause and effect analysis between the residential demand and factors of settlement, the ordered probit model was applied. Significant determinants of settlement demand unfolded according to depopulation types. In the case of less developed areas, residential demand was affected significantly by the factors of daily life convenience and public facilities. Key settlement demand determinants of stagnated regions included the aspects of basic-natural environment, daily life convenience and education. Meanwhile, key settlement demand determinants for developed areas included education and agriculture-economic aspects.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was also applied to a set of settlement characteristics of rural communities to figure out the settlement factors requiring urgent endeavor to improve.

Key words : Rural Society, Demand, Determinant, Residential Settlement, Depopulation

1. 서 론

지난 35년(1970-2005) 동안 농촌지역(읍·면) 인구는 1970년도의 1,850만명에서 2005년도에 870만명으로, 연평균 2.13% 감소하였다. 반면에 동기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3,144만명에서 4,704만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1.16%의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도의 58.8%에서 2005년도에는 18.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희찬 외(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2005년 이후 연평균 -2.1%의 비율로 감소함에 따라 2020년에는 13.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수치는 사회경

제적 변화 또는 정책도입 등으로 인해 가변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인구의 감소현상에 있어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이나 EU국가들과는 달리 농촌사회의 절대인구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사회의 유지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농촌인구의 감소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농촌인구의 왜곡된 연령별 분포와 급속한 노령화의 진전이다. 도시지역인구 대비 농촌인구의 연령별 분포는 1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이 적은 역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5). 반면에 농촌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약 15%에 달해 농촌인구는 2000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김경덕(2004)에 의하면 2010년도 농촌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가 넘음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특히, 유효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농가인구의 분포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Corresponding author : Lee, Hee-Chan

Tel : 02-3408-3183

E-mail : leeheech@sejong.ac.kr

지방화 시대에 있어 농촌지역의 핵심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가인구와 지역인구의 근간을 이루는 농촌인구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농촌인구의 유출이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터전으로서 가치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연구는 농촌인구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낙후지역 또는 인구 과소지역 등을 문제 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60~85년의 25년간 농촌지역의 인구가 25% 이상 감소한 지역을 과소지역으로 지정하는 과소지역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정기환 외, 1999). 영국의 경우 교육, 의료, 통신, 법률, 고용 등에 대해 Rural Services Standard(Countryside Agency, 2001)를 작성하여 농촌인구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구조적 왜곡과 인구감소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를 힘들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농촌지역에 있어 적정수준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민 유입을 위한 시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농촌사회 구성원의 정주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관련연구의 상당수는 도시민의 농촌거주를 위한 정주환경조성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윤순덕·박공주, 2006), 도시민 유치수단으로서의 가족농원 육성(이민수 외, 2007), 농촌관광시행에 의한 도시민 유입효과(이세희 외, 2008)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농촌사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정주수요에 관하여 다룬 연구는 매우 일천하다.

농촌인구의 정주수요는 개인적 특성을 예외로 하면, 지역 공동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일상생활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일체의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주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이들 속성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주수요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거주 의사 또는 거주만족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로도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정주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주속성 역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정주수요에 대한 이들 정주속성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촌사회 인구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정주수요분석은 공동사회 구성원의 선행적 수요라는 점에서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정주수요 창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사회 인구의 정주수요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주수요 분석과 관련된 세부 목표는 정주속성 측정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및 정주수요와 정주속성요인 간 인과모형 분석이다. 정주수요의 결정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중요한 착안점은 해당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생활조건에 대한 요구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의 과소화유형이 지역적 특성을 구분 짓는 주요 요인이라 보고, 조절변수로서 과소화유형에 따른 정주수요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IPA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었다. 기존에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져 왔던 농촌사회의 정주수요 관련 연구 중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을 두고 수행된 것은 없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과소화유형에 따라 6개도에서 각 1개 읍 또는 면을 지정한 후 해당 읍·면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주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믿어지는 정주속성은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지표를 근거로 하여 구성하였다. 정주수요와 정주속성 간의 인과모형으로서 서열적으로 표현되는 종속변수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서열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이 적용되었다.

II. 농촌 정주수요 관련 선행연구

지방개발전략으로서 정주생활권에 관한 연구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에서 채용한 생활권개발개념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연구결과가 구체적 시행계획의 형태로서 농업·농촌부문에 처음 소개된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1990)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은 행정부의 부처별 소관업무에 따른 사업예산편성과 투입자지원에 의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부처별 업무분장에 따라 대상 또는 범위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지역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특화사업의 활성화와 정주기반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련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이 기반정비나 생산성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감소현상과 시설의 공동화는 여전히 진행되어 왔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정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정부는 농정목표를 농촌사회의 적정인구 유지에 두게 되었으며, 그 수단을 농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에서 찾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기본계획(2005)이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되었다. 동 계획의 주요내용으로서 농산어촌의 복지 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그리고 복합산업 활성화 등은 궁극적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수단이다. 동 계획은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의 심의와 농산어촌의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농산어촌 대책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동 계획 수립이후, 몇 개의 관련연구가 정주수요 또는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를 배경으로 수행되었다. 이희찬 외(2005)는 농촌사회의 적정인구 유지방안의 일환으로써 농촌사회의 인구변동을 전망하고,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농촌정주수요를 분석하였다. 농촌의 정주속성을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불일치에 따른 gap으로 치환하고, 이들 변수와 정주수요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농업환경요인과 자연환경요인에 대한 불만족은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생활환경요인은 이촌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 도시민에 대해서는 농촌정주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동기요인, 이주제약요인, 인구통계적 특성, 그리고 최저정책자금 수용액 등을 포함하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이주의사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동기요인의 구분을 통해 도시부문의 압박(push)요인보다는 농촌부문의 유인(pull)요인이 농촌정주 잠재수요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힘에 따라 도시민에 대한 귀촌정책이 농업정책을 통해 내부화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유사한 연구로서 황홍도·이동현(2007)은 경남 고성군 낙후농촌정주생활권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촌정주생활 여건으로서 주택 및 상하수도, 학교교육,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소득기회, 문화여건, 의료서비스 등이 독립변수로서 만족도와 인과모형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로서 낙후농촌정주생활지역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 교육, 교통, 복지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고성군 관내 행정리 이장 18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 차원에서의 정주수요 분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사지역의 편중성 역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하나의 유형으로서 유사한 정주여건을 기반으로 하는 낙후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평가받을 수 있다.

송미령 외(2007)는 정주수요와 그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분석은 아니나 정주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품질에 대해 전국단위의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교육시설, 보건·의료, 문화·여가,

생활편의 서비스, 대중교통시설, 정보통신 등의 정주속성에 대해서는 불편한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주택, 생활환경, 소득, 자연환경·문화보전, 활동참여기회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로써 각 정주속성을 평가 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민의 농촌정주 잠재수요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주속성으로 제시된 대부분의 요인들은 기존의 연구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거론되어 왔던 것들이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정주수요를 결정하는 정주속성으로서 삶의 질과 관련된 측정항목을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는 광범위한 학문적 영역을 통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한국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지표를 개발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통계청(1979)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초기의 연구로는 김동일 외(1982)가 있으며,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체계를 갖추어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로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6)가 있다. 그 외에 박대식·이영대(1997), 박대식·최경환(2002), 박대식·마상진(2007) 등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대해 연구하였다. 삶의 질에 관한 분류 또는 측정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 개발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서 박대식·마상진(2007)은 기존연구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2005)의 분류체계(복지기반, 교육여건, 지역개발 및 복합산업)에 근거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13개 중분류 영역으로 구분한 후, 최종적으로 19개의 개별지표를 도출하였다. 소개하자면, 소득, 소비, 직업,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기초생활여건, 주택, 정보·통신, 대중교통, 생활환경, 교육서비스, 사회교육기회, 학교교육기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 복지, 이웃관계, 가정생활, 문화·여가시설 등이다. 이들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절대적 중요도에 있어 소득, 교육서비스, 건강,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높고, 정보·통신과 이웃관계 등은 낮게 나타났다.

III. 조사 및 자료

농촌주민 대상의 설문을 위한 조사지역은 이희찬 외(2005)의 인구증가율 및 고령인구비율에 따른 읍·면별 과소화유형과 해당지역의 인구규모를 참고로 하여 과소화유형에 따라 낙후, 정체, 성장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유

형별로 2개씩 선정된 6개 읍·면이다. 대상 읍 또는 면을 방문하여 소재지를 중심으로 가구 또는 공공장소 방문 등을 통해 무작위 추출된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 총 656개의 유효표본이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Table 1 참조). 설문내용은 정주수요, 정주속성 측정항목,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여섯 개 도별로 하나씩이다. 조사대상 읍·면별 표본의 크기 및 인구현황은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낙후지역으로서 감곡면(전북 정읍시), 현도면

(충북 청원군), 정체지역으로서 둔내면(강원 횡성군), 풍산읍(경북 안동시), 그리고 성장지역으로서 가남면(경기 여주시)과 금산읍(충남 금산군) 등이 각각 선정되었다. 풍산읍의 경우 인구감소를 및 고령인구비율에 있어 낙후지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인구의 규모를 반영하여 정체지역에 포함시켰다.

표집된 응답자는 남성의 비율(69.6%)이 높으며, 주요 연령층은 40대(38.7%)와 50대(29.9%)이다. 학력수준으로는 고졸(40.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중졸, 초등학교, 대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부분(92.9%)

Table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항목	세부 사항
조사내용	농촌지역 정주수요 및 정주속성
조사대상	인구과소화 유형에 따른 6개 읍면 거주자 (전북 감곡면, 충북 현도면, 강원 둔내면, 경북 풍산읍, 경기 가남면, 충남 금산읍)
조사기간	2005년 12월
조사방법	지역별 무작위 추출 표본대상의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면담조사
유효 표본수	656개

Table 2 조사 대상지역 현황(2005년)

지역명	표본크기	과소화구분	인구수	인구증가율*	65세이상 인구수	65세이상 인구비
감곡면	120	낙후지역	3,977	-3.71%	1,132	28.5%
현도면	116	낙후지역	4,436	-2.54%	1,086	24.5%
둔내면	95	정체지역	5,386	0.13%	932	17.3%
풍산읍	110	정체지역	8,130	-2.22%	2,083	25.6%
금산읍	121	성장지역	23,922	0.53%	2,876	12.0%
가남면	94	성장지역	16,100	2.65%	1,840	11.4%

* 1995년부터 200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임.

Table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기술통계

	구분				구분		
	빈도	%			빈도	%	
연령	20-30대	72	11.2	성별	남성	454	69.6
	40대	249	38.7		여성	198	30.4
	50대	192	29.9	농지보유	있음	429	66.9
	60대 이상	130	20.2		없음	212	33.1
학력	초등학교이하	142	21.9	주택형태	농가	292	45.1
	중졸	159	24.5		일반주택	232	35.8
	고졸	261	40.2		아파트·연립	108	16.7
	대졸이상	87	13.4		기타	16	2.5
결혼 유무	기혼	602	92.9	주택소유 구분	자가	557	86.0
	미혼·기타	46	7.1		전·월세	61	9.4
가계소득 (월)	100만원 미만	197	30.6		기타	30	4.6
	100-200만원 미만	226	35.1	유년시절 성장지역	서울·수도권	33	5.0
	200-300만원 미만	135	21.0		광역시	13	2.0
	300-400만원 미만	47	7.2		중소도시	47	7.2
	400만원 이상	39	6.1		농촌지역	562	85.8

이 기혼자이며, 월평균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의 비율이 65.7%로서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주택형태로서 농가(45.1%)와 일반주택(35.8%)이 주류를 이루며, 주택의 소유형태는 대부분 자가(86%)이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유년시절을 농촌지역(85.8%)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읍·면의 과소화유형에 따라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공공서비스 또는 정주속성에 대해 상이한 선호도로 이어질 수 있다. 유형구분의 의미는 내부적으로는 동질성을 공유하고, 상호간에는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정책시행의 효율성을 얻고자 함이다. 낙후, 정체, 성장지역으로 명명된 과소화유형이 의미있는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유형 간 특성의 차이가 드러나야 한다. 지역적 특성의 대응치로서 인구통계적 특성 및 주거환경에 대한 과소화유형 간 차이를 보면 Table 4와 같다.

조사장소 및 시점에 따른 우연변동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과소화유형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간에는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연령, 학력, 소득 등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에 있어서 과소화유형 간 서열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낙후지역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그리고 정체지역은 성장지역에 비해 높은 연령층과 낮은 학력 및 낮은 소득수준으로 대변된다. 낙후 및 정체지역은 성장지역에 비해 농지소유비율이 높으며, 주택형태로서 농가의 비율 역시 높다. 주택소유구분에 있어서는 두 지역이 성장지역에 비해 자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과소화에 따른 유형구분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뚜렷하게 구분 짓는 착안점이라고 본다면 정주수요 역시 과소화유형에 따른 구분에 의해 분석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IV. 분석결과

1. 정주속성 중요도-실행도 분석

농촌사회의 정주속성에 대해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Table 4 과소화유형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

변수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χ^2	Sig.
성별	남	71.4%	74.5%	63.1%	6.96	0.031
	여	28.6%	25.5%	36.9%		
연령	20-30대	9.9%	10.1%	13.6%	141.29	0.000
	40대	23.3%	26.3%	67.1%		
	50대	33.6%	42.9%	13.6%		
	60대 이상	33.2%	20.7%	5.6%		
학력수준	초등졸이하	32.5%	26.9%	5.6%	96.36	0.000
	중졸이하	26.9%	31.3%	15.4%		
	고졸이하	33.8%	31.8%	55.1%		
	대졸이상	6.8%	10.0%	23.8%		
결혼여부	기혼	93.2%	91.0%	94.4%	1.84	0.398
	미혼·기타	6.8%	9.5%	5.6%		
소득	100만원 미만	45.3%	35.2%	10.3%	91.06	0.000
	100-200만원 미만	33.3%	37.2%	35.0%		
	200-300만원 미만	12.8%	18.4%	32.2%		
	300-400만원 미만	3.8%	4.1%	14.0%		
	400만원 이상	4.7%	5.1%	8.4%		
농지소유	있음	72.5%	80.0%	49.3%	48.10	0.000
	없음	27.5%	20.0%	50.7%		
주택형태	농가	59.3%	54.1%	19.1%	166.67	0.000
	일반주택	38.6%	32.7%	34.4%		
	아파트·연립·기타	2.1%	13.2%	46.5%		
주택소유구분	자가	88.6%	87.8%	78.1%	11.49	0.003
	전월세·기타	11.4%	11.2%	21.9%		

* 같은 과소화유형에 포함된 개별 읍·면에 대해서도 표 안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변수들을 이용하여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변수에 대해 주어진 유형 내에서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유형 내의 지역 간 동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을 실시하였다. IPA는 주어진 속성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 간 차이의 방향과 크기를 통해 마케팅적 의미를 해석하는 절차로서 Martilla and James(1977)에 의해 소개된 이래 마케팅을 비롯하여 매우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IPA는 평가요소의 중요도와 실행도를 측정하여 2차원 도면상에 표시하고, 그 위치에 따라 의미를 부여한다. 정주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모두 29개 항목이 제시되었으며, 정주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정주속성은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농촌사회의 삶의 지표 측정항목 중에서 선택된 것들이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공공서비스 요구도 등에 있어서 과소화유형 간의 차이는 정주속성에 대해서도 상이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주속성에 대한 IPA 역시 각 과소화유형별로 진행되었다.

중요도-실행도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나뉜 4사분면 중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제1사분면(좋은 성과 지속유지: keep up the good work): 이용자들이 평가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평가속성에 대한 실행도 또한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2사분면(과잉노력 지양: possible overkill): 이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낮은 평가속성에 대해 실행도가 과잉되게 나타난 상태로서 실행도를 줄이거나 투입된 노력을 다른 평가속성에 투입해야 할 속성들이다. 셋째, 제3사분면(낮은 우선순위: low priority): 이용자들의 평가속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게 평가하고 있고, 실행도 또한 낮은 상태로서 현재 이상의 노력이 불필요한 상태의 속성들이다. 넷째, 제4사분면(노력 집중화의 지향: concentrate here): 이용자들이 평가속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 평가속성에 대한 실행도는 낮게 평가된 상태로서 향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속성들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IPA결과는 Figure 1에서 보는 것과 같다. IPA도면의 제1사분면에 포함된 정주속성은 맑은 물과 공기(FRESH), 주변경관(ENVI), 주거환경(LIVING), 먹거리안정성(ISAFE), 인터넷·통신망(NET), 신뢰(TRUST), 치안(SECU), 의료서비스(MEDI) 등이다. 이들은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속성들이다. 제2사분면에는 우체국·금융시설(POST), 전통문화보존(TRAD), 공공교육시설(PUBEDU), 토지임대(LEASE), 토지가격(VALUE), 자녀들의 적응(ADAPT), 제조·서비스업(INDUS), 생활편의시설(CONV) 등의 속성들이 있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낮은 중요도에 비해 과대한 성과가 이루어졌음에 따라 노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제3사분면에 있는 공공도서관·학습자료(LIBRARY), 직업기회의 다양성(VARIJOB), 영유아 보호시설(CARE) 등의 속성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의미 있게 요구되는 속성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제4사분면에는 학자금지원(EDUFUND), 환경·상하수도시설(WATER), 교통(USEFUL), 소득향상기회(CHANCE), 공공체육·문화기반시설(FACIL), 사교육시설(PRIEDU), 농업전망(PROSP), 농산물가격(DEMPRI), 정부지원금(FUND), 농업정책(AGRPOL) 등의 속성들이 위치해 있다.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이들 4사분면 항목이 낙후농촌지역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정주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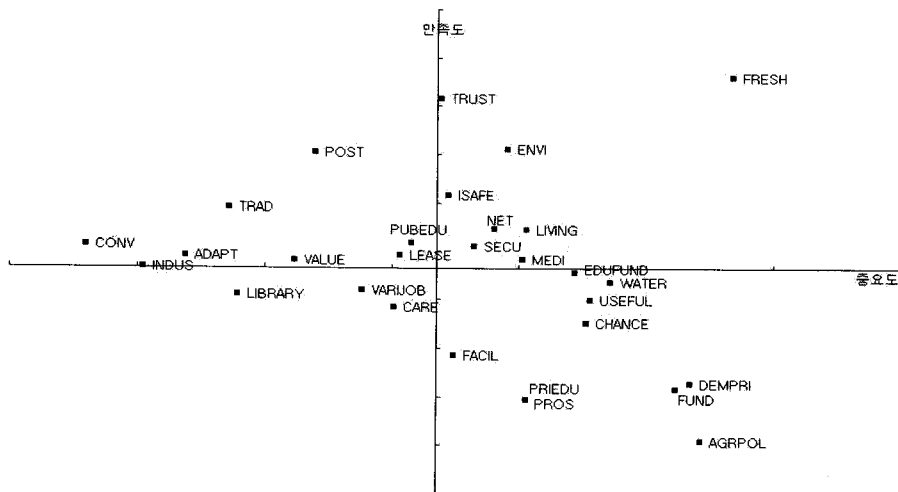


Figure 1 낙후지역의 농촌정주속성 IPA.

과소화유형에 따른 농촌사회 정주수요 분석

과소화유형에 의한 정체지역의 IPA결과는 Figure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제1사분면에 포진함에 따라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속성들은 농촌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주변경관, 인터넷·통신망, 주거환경, 교통, 공공교육시설 등이다. 정책적 관여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제2사분면 속성으로는 신뢰, 주변경관, 우체국·금융시설, 전통문화보존, 먹거리안정성, 치안, 토지임대, 자녀들의 적응, 공공도서관·학습자료, 생활편의 시설 등이 있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제3사분면 속성으로는 토지가격, 제조업·서비스업, 사교육시설, 직업기회의 다양성, 공공체육·문화기반시설 등이 있다. 정체지역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속성으로서 의로서

비스, 환경·상하수도시설, 학자금지원, 영유아보호시설, 소득향상기회, 농산물 수요가격, 정부지원금, 농업정책, 농업전망 등이 제4분면에 포함되어 있다.

성장지역에 대한 IPA결과는 Figure 3에서 보는 것과 같다. 제1사분면에는 농촌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먹거리안정성, 인터넷·통신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속성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이미 충분한 성과를 얻고 있어 노력의 분산이 요구되는 제2사분면 속성으로는 신뢰, 주변경관, 우체국·금융시설, 전통문화보존, 주거환경, 치안, 토지임대, 자녀들의 적응 등이 있다. 현재 이상의 노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속성으로서 제3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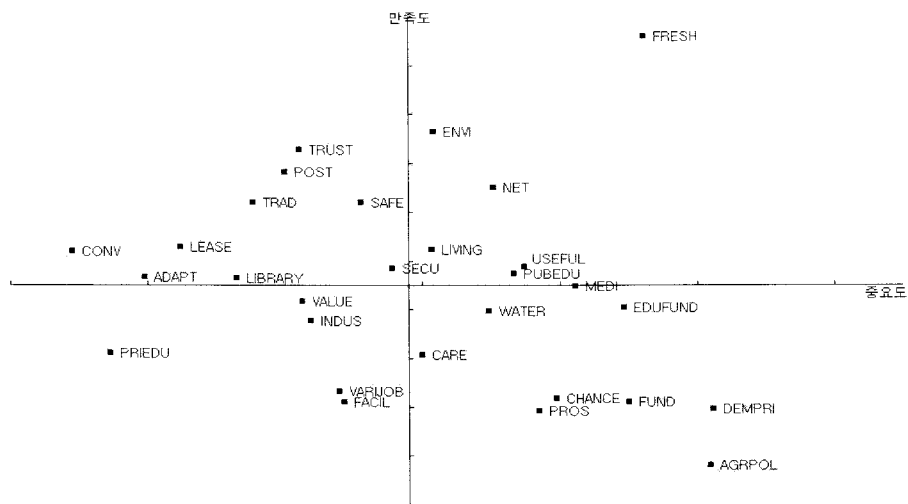


Figure 2 정체지역의 농촌정주속성 I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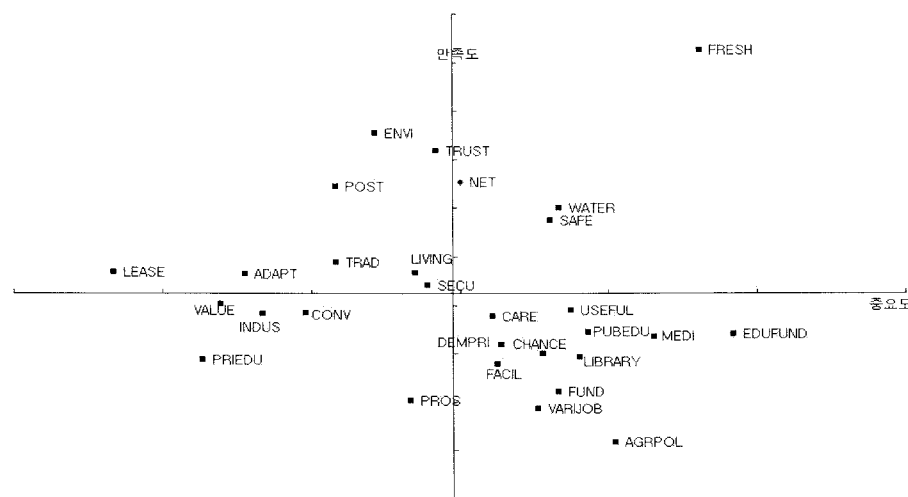


Figure 3 성장지역의 농촌정주속성 IPA.

면에는 토지가격, 제조업·서비스업, 생활편의시설, 사교육시설, 농업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사분면 속성으로는 공공교육시설, 교통, 의료서비스, 학자금지원, 영유아보호시설, 공공체육·문화기반시설, 소득향상기회, 농산물가격, 정부지원금, 농업정책, 직업기회의 다양성, 공공도서관·학습자료 등이 있다. 이들 정주속성이 성장지역에 있어 시급히 요구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IPA의 4사분면 중 주어진 어느 한 개 사분면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이라 하더라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또는 축과의 근접도 등에 따라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면서 축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속성을 대상으로 지역 간 비교를 하였다. 과소화유형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거주지의 자연환경(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중요도에 비해 과도한 성과가 있어 노력의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는 전통문화보존, 우체국·금융시설, 그리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정부지원금, 농업정책, 농산물가격, 소득향상기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유형 간 공유하고 있는 속성 중 3사분면에 포함된 것은 없었다. 제4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정주속성 중 과소화유형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는 낙후지역의 사교육시설, 교통, 농업전망, 정체지역의 농업전망, 그리고 성장지역의 공공교육시설, 학자금지원, 공공도서관·학습자료, 의료서비스, 직업기회의 다양성 등이 다.

IPA는 동차원상의 중요도와 실행도 간 차이의 크기와 방향을 통해 주어진 속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해당 속성에 대해 유지, 노력분산, 노력집중 등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뿐 속성에 의해 주민의 삶의 질 또는 정주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정주속성이 주민의 삶 또는 정주수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주속성과 정주수요 간의 인과모형분석이 필요하다.

2. 정주수요모형 추정결과

정주수요를 의미하는 대응변수(surrogate variable)로서 거주만족도, 애향심, 정주희망, 이촌의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태도연구(attitudinal approach)에 있어서 만족도는 해당재화의 수요를 측정하는 변수로 가장 빈번히 이용된다. 위의 정주수요 대응변수들은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정주수요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수들 간에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4개 변수에 대한 내적 일관성 검증에 있어서도 Cronbach α 값

은 0.67로서 비교적 높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주수요의 본질을 상정함에 있어 각 대응변수의 의미전달에 차이는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사회의 정주수요라는 특수성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만족도와 애향심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반면에 이촌의도는 농촌사회의 압력(push)요인 외에도 신규거주지의 유인(pull)요인이 게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결국 정주수요를 대리하는 변수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주희망이다. 각 변수와의 상관도분석결과에 있어서도 나머지 세 개변수와 가장 높은 상관도를 보인 변수도 정주희망이었다. 대안으로서 이들 대리변수에 의한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다.

정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서 정주속성은 모두 29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앞의 IPA에서 사용된 바 있다. 정주속성의 중요도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의미있는 몇 개의 요인변수로 축약시키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측정변수 중 요인적재치가 유난히 낮은 5개를 제외한 24개 변수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본래의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요약하는 R-type 요인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직각회전의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추출과정에 있어서는 고유치(eigenvalue) 기준을 적용하여 값이 1보다 클 경우에 대해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내적 일관성 검증에서 모든 요인의 Cronbach α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교적 높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산설명력은 60.5%로서 역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요인에 대해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측정항목을 고려하여 이름을 명명하였다. 요인1은 전통문화 보존, 공공도서관 및 학습자료, 우체국 및 금융시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기반 시설, 자녀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적용, 영·유아 보호시설 등의 항목을 포함함에 따라 '공공기반'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농산물수요와 가격, 정부의 농업정책, 정부의 지원금, 경제적 소득향상기회, 교통 편리성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경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병원이용 및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직업기회의 다양성, 농어촌학생 학자금지원, 생활편의 시설, 농촌지역의 치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생활편의'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농촌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농촌의 주변경관, 환경시설·상하수도 등의 시설, 먹거리 안전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자연환경'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

Table 5 농촌정주속성 요인분석

요인명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요인 1 공공기반 (16.8%, $\alpha = 0.851$)	- 전통문화의 보존	0.778
	- 공공도서관 및 학습자료	0.730
	- 우체국 및 금융시설	0.688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발달	0.665
	-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기반 시설	0.630
	- 자녀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적응	0.583
	- 영·유아 보호시설	0.539
요인 2 농업·경제 (13.8%, $\alpha = 0.804$)	- 농산물 수요와 가격	0.748
	- 정부의 농업정책	0.728
	- 정부의 지원금	0.696
	- 경제적 소득향상기회	0.567
	- 교통 편리성	0.552
요인 3 생활편의 (13.6%, $\alpha = 0.774$)	- 병원이용 및 건강검진 등 의료서비스	0.689
	- 직업기회의 다양성	0.655
	- 농어촌학생 학자금지원	0.640
	- 생활편의 시설	0.606
	- 농촌지역의 치안	0.572
요인 4 기초환경 (10.2%, $\alpha = 0.772$)	- 농촌의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0.763
	- 농촌의 주변경관	0.738
	- 환경시설·상하수도 등의 시설	0.598
	-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0.508
요인 5 교육환경 (6.1%, $\alpha = 0.600$)	- 농업에 대한 전망	0.598
	- 공교육(초·중·고) 시설	0.580
	- 사교육(학원) 시설	0.543

는 농업에 대한 전망, 공교육(초·중·고) 시설, 사교육(학원) 시설 등의 측정변수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환경’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에 속한 측정항목 중 농업전망에 대해서는 농업과의 연계성보다는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주수요와 정주속성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된 틀은 서열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model: OPM)이다. OPM은 선형회귀모형의 대안으로서 종속변수가 본 연구의 정주수요처럼 서열적으로 표현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Greene, 2000; Maddala, 1983). 독립변수로서 정주속성요인은 각 요인별 요인점수(factor score)가 이용되었다. 과소화유형에 따른 정주수요모형 추정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것과 같다. 추정된 모형의 검정으로써 전체모형의 적합도는 우도함수값에 의한 chi-square에 의해, 개별 변수에 대한 적합도는 t-value에 의해 판단하였다. 과소화유형별 전체모형의 적합도로서 chi-square값은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소화유형에 따라 정주수요에 미치는 결정요인 역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낙후지역의 정주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서 생활편의요인과 공공기반요인이 각각 유의수준 1%와 10%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낙후지역에 있어 정주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의료서비스, 편의시설, 일자리, 학자금지원, 치안 등을 포함하는 생활편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은 이보다 적으나 전통문화 보존, 공공도서관 및 학습자료, 우체국 및 금융시설,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기반 시설, 자녀들의 농촌생활에 대한 적응, 영·유아 보호시설 등의 측정항목을 포함하는 공공기반요인도 낙후지역 농촌사회의 정주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기초·자연환경요인, 교육요인, 농업·경제요인 등과 정주수요와의 인과적 관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은 찾아볼 수 없다.

정체지역 농촌사회 정주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생활편의요인과 교육요인이 각각 유의수준 1%와 10%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며, 기초·자연환경요인은 5%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정주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주속성에 관한 것이다. 원론적인 해석은 해당 정주속성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정주수요는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체지역이 생활편의요인과 교육요인 등 해당 속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며, 이에 따라 정주수요에 부정적인 영

Table 6 농촌인구 정주수요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낙후지역		정체지역		성장지역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계수	t-value
공공기반	0.1351*	1.6538	-0.0002	-0.0021	0.0360	0.3116
농업·경제	-0.1176	-1.3919	-0.1406	-1.5244	0.1804*	1.7768
생활편의	0.2137***	2.6332	-0.2586***	-2.7360	-0.0650	-0.5983
기초·자연환경	0.1338	1.5635	0.2147**	2.4584	0.0855	0.9085
교육환경	0.0231	0.2845	-0.1435*	-1.7088	0.3138***	3.3015
Constant	1.9177	18.4625	1.6192	14.8570	2.0692	18.6101
Log-L	-212.36		-190.06		-215.49	
Rest. Log-L	-222.29		-200.90		-224.43	
Chi squared	19.86***		21.68***		17.87***	
# of observations	184		149		184	

주: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을 나타냄.

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정주속성 역시 해당지역의 정주수요 증진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인이다. 한편, 현재 농촌의 환경과 경관, 환경·상하수도시설, 먹거리 안전성 등과 같은 기초·자연환경요인은 정체지역의 정주수요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밖에 공공기반요인이나 농업·경제요인은 정체지역의 정주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소화유형 중 성장지역에 해당하는 농촌사회 정주수요의 결정요인으로서 교육환경요인과 농업·경제요인이 각각 유의수준 1%와 10%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성장지역의 정주수요에 있어 공공교육기반 및 사교육 시설 등의 교육환경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농산물수요와 가격, 농업정책, 정부지원금, 소득향상의 기회 등 농업 및 경제적 환경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공공기반요인, 생활편의요인, 기초·자연환경요인은 성장지역의 정주수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사회 정주수요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정주수요 분석과 관련하여 정주속성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정주수요 및 정주속성요인 간 인과모형 분석 등이 수행되었다. 수요분석에 있어 중요한 착안점은 인구의 과소화유형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물리적 환경을 구분 짓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과소화유형을 조절변수로 취급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과소화유형에 따라 낙후, 정체, 성장지역으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2개씩 선정된 6개 읍·면의 거주주민 대상의 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과

소화유형은 해당지역의 인구증가율, 노인인구비율, 그리고 인구규모 등에 의해 구분된 것이었다.

조사장소 및 시점에 따른 우연변동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과소화유형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연령, 학력, 소득 등 주요 인구통계적 특성에 있어서 과소화유형 간 서열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낙후지역은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정체지역은 성장지역에 비해 높은 연령층과 낮은 학력 및 소득수준을 보였다. 또한 농지소유비율, 주택형태, 주택소유구분 등에 있어서도 과소화유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인구 과소화에 따른 유형구분이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물리적 환경요인을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 짓는 착안점이라고 본다면 정주수요 역시 과소화유형에 따른 구분에 의해 분석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

농촌사회의 정주속성에 대해 중요도-실행도 분석(IPA)을 실시하였다. 낙후지역에 대한 IPA결과에 의하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정주속성으로서 학자금지원, 환경·상하수도시설, 교통, 소득향상기회, 공공체육·문화기반시설, 사교육시설, 농업전망, 농산물가격, 정부지원금, 농업정책 등이 도출되었다. 정체지역의 IPA결과는 의료서비스, 환경·상하수도시설, 학자금지원, 영유아보호시설, 소득향상기회, 농산물 수요가격, 정부지원금, 농업정책, 농업전망 등에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성장지역에 대한 IPA결과에 의하면 공공교육시설, 교통, 의료서비스, 학자금지원, 영유아보호시설, 공공체육·문화기반시설, 소득향상기회, 농산물가격, 정부지원금, 농업정책, 직업기회의 다양성, 공공도서관·학습자료 등이 개선을 요구하는 정주속성이었다.

과소화유형 간 비교로서, 과소화유형에 관계없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거주지의 자연환경(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 중요도에 비해 과도한 성과가 있어 노

력의 분산이 필요한 것으로는 전통문화보존, 우체국·금융시설, 그리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는 것은 정부지원금, 농업정책, 농산물가격, 소득향상기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요구되는 정주속성 중 과소화 유형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는 낙후지역의 사교육시설, 교통, 농업전망, 정체지역의 농업전망, 그리고 성장지역의 공공교육시설, 학자금지원, 공공도서관·학습자료, 의료서비스, 직업기회의 다양성 등이었다.

정주수요와 정주속성인 간의 인과모형분석을 위해 서열프로빗모형이 적용되었다. 독립변수인 정주속성은 속성과 관련된 측정항목에 요인분석을 적용하여 도출된 요인변수였다. 과소화유형에 따라 정주수요에 미치는 결정요인 역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낙후지역의 경우 정주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은 생활편의요인, 그리고 영향력은 다소 낮으나 공공기반요인 등으로 나타났다. 정체지역에 있어 정주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은 기초·자연환경요인, 그리고 생활편의요인과 교육요인 등이었다. 이들 요인 중 생활편의요인과 교육요인은 해당 속성을 적정수준으로 공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과소화유형 중 성장지역에 해당하는 농촌사회 정주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은 교육환경요인과 농업·경제요인 등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가 농촌사회의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정주수요를 분석함에 있어 인구의 과소화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보는 것이 여전히 의미있는 접근임을 밝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과소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기준 간 중요도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소화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써 인구증가율, 고령인구비율, 인구규모 등을 사용하였다. 과소화유형 구분에 있어 보다 정밀한 잣대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의 지역적 분석단위는 읍 또는 면이었다. 정주수요와 관련한 농촌사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5년 12월에 수집된 것으로서 시간적으로는 다소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괄목할 만한 농촌사회의 구조적 변혁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참고문헌

1. 김경덕, 2004, 농촌·농가인구 및 농업노동력 증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김동일, 심재웅, 유철인, 1982, 한국 농촌주민의 삶

의 질: 사회지표 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2005 농촌생활지표 조사 보고서.
4. 박대식,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5. 박대식, 박경철, 2003,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박대식, 이영대, 1997, 농촌복지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박대식,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송미령 외, 2007, 농촌 정주수요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 윤순덕, 박공주, 2006, 도시민의 은퇴 후 농촌정주에 대한 수요분석, 농촌계획, 12(2), 37-47.
10. 이민수, 박덕병, 채종현, 2007,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체재형 가족농원 육성방안: 시장세분화 접근, 농촌계획, 13(2), 93-105.
11. 이세희, 정남수, 엄대호, 2008, 농촌마을의 농촌관광 시행에 따른 인구유입효과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4(3), 19-25.
12. 이희찬 외, 2005, 농촌사회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방안 연구, 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3. 정기환, 문순철, 민상기, 1999, 농촌 인구 과소화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통계청, 2005, 인구 및 주택센서스.
15. 통계청, 2006, 한국의 사회지표.
16. 황홍도, 이동현, 2007, 낙후농촌 정주권개발을 위한 농촌정주생활여건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41(4), 79-89.
17. Countryside Agency, 2001, Rural Service Standard, The first process report.
18. Greene, W. H., 2000,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19. Maddala, G. S., 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접 수 일: (2009년 2월 10일)

수 정 일: (1차: 2009년 2월 24일, 2차: 3월 5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5일)

■ 3인 익명 심사필